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9.16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5	8	9	10	11	12
13	12	15	16	17	18	19
20	19	22	23	24	25	26
27	26	29	30			

원/달러 환율

1,359.60원 (+11.10원)

KOSPI

6,627.26 (-57.11, -0.85%)

KOSDAQ

812.41(+5.62, +0.70%)

국고채 10년 금리

4.6(+0.064%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Special Report

무선통신장비

쇼티지 불가피, 27년 주가 크게 오른다 [김홍식]

Global Asset Strategy

CrediVille

2027년도 수급전망 단상 [김상만]

실적 퀀트

종목을 고르지 않는 시장 [이경수]

신흥국 전략

인도 이슈 업데이트: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신호 [김근아]

기업분석

글로벌텍스프리

관광대국, 인구소멸 대한민국의 운명 [박찬술]

산업분석

유틸리티

연료비 조정단가는 언제나 동결 [유재선]

단기투자유망종목

HD현대중공업, 삼성SDI, SK이노베이션, 한화생명, 오리온, DL이앤씨, 대한해운, 피에스케이홀딩스,
RFHIC, 인텔리안테크

하나증권

2026년 9월 16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Overweight

Top Pick 및 관심종목

*CP 2026년 9월 15일

RFHIC(218410)

BUY | TP 150,000원 | CP 49,350원

KMW(032500)

BUY | TP 70,000원 | CP 16,070원

솔리드(050890)

BUY | TP 30,000원 | CP 8,750원

LIG아큐버(073490)

BUY | TP 80,000원 | CP 29,600원

오이솔루션(138080)

BUY | TP 60,000원 | CP 23,650원

에치에프알(230240)

BUY | TP 50,000원 | CP 11,410원

NOKIA(NOKIA FH)

NA | TP NA | CP 8.59 EUR

Ericsson(ERICB SS)

NA | TP NA | CP 98.04 SEK

무선통신장비

2027년 쇼티지 발생으로 높은 Multiple 형성 예상

미국 이미 대규모 투자 예고, AI 기지국이 IT 시장 이끌 것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지 않지만 미국은 이미 2026년 7월 OBBBA 법안 제정을 통해 2027~2029년 800MHz에 달하는 대규모 주파수 경매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2026년 6월 AWS 3밴드 주파수 경매에 이어 2027년 4월 어퍼 C밴드 주파수 경매를 예고하였다. 피지컬 AI 육성 목적인데 미국 통신사 5G/6G 서비스 확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AI 데이터센터 다음으로 AI 기지국을 새로운 먹거리로 밀기 시작하였다. GPU 매출을 늘리기 위한 것인데 과거 글로벌 IT로 인해 각국 규제 기관들이 움직인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신규 주파수 투자 명분 하에 5G SA/6G로 진화하면서 통신과 AI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AI 기지국 보편화가 예상된다. AI 기지국 확산을 위해 5G SA/6G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5G SA 킬러 서비스는 이전에 언급한대로 피지컬 AI와 양자암호통신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미국의 대 중국 장비/부품 규제로 2027년 공급 부족 사태 벌어질 전망

시장 확산 추세와는 달리 무선통신장비 업체 수는 지난 20년간 급감하였다. 성수기가 2년/비수기가 5년인 업종 특성상 자금 문제가 컸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SI(제안업체) 및 아웃소싱업체들이 급성장한 반면 미국/유럽 업체들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삼성/후지프의 위상은 유지되는 상황을 보였다. 그런데 수급 상황을 보면 2027년엔 공급 부족 이슈가 커질 전망이다. M&A를 거쳐 상위 업체로 합쳐지는 양상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SI는 물론 아웃소싱업체들의 수도 급감한 데다가 친미 국가들의 중국산 장비/부품 제재 양상이 강화되고 있어서다. 미국/중국이 양립하는 유선과 달리 무선 통신장비 시장은 중국/유럽/한국/일본 업체들이 경쟁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중국이 배제되다 보니 공급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미국의 중국산 제재로 광모듈 공급 대란이 벌어졌고 이에 중국산 규제 완화 필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아웃소싱 무선 통신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과거 경험상 상상의 Multiple 형성 전망, 하반기 무선장비주 적극 매수해야

피지컬 AI 경쟁 상황을 감안하면 2027년엔 미국과 더불어 국내도 주파수 경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파수 총량을 비교하면 명분이 크다. 그런데 만약 2027년 무선통신장비 공급 부족이 현실화된다면 예상보다 높은 Multiple 형성이 예상된다. LTE/5G 도입 쇼티지 발생 당시 사례로 보면 그렇다. 과거 무선 통신장비 업종 시가총액은 향후 3년 내 도달 가능한 연간 최대 영업이익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바 있다. 2027~2029년 연간 최대 영업이익이 KMW 3,000억원/RFHIC 1,500억원에 달한다고 가정하면 두 종목 모두 향후 2년 내 시가 총액 10조원 도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RFHIC/KMW/솔리드/HFR/LIG아큐버/오이솔루션 적극 매수를 추천한다.



Analyst 김홍식 prol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2026년 9월 16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t

CrediVille

2027년도 수급전망 단상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내년엔 회사채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2026년 크레딧시장은 시종일관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연초 회사채 발행이 부진하면서 연초효과가 무력화됨에 따라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부터 조짐이 안 좋았다. 그런 와중에 국내외적으로 이벤트가 풍성(?)함에 따라 안 그래도 부정적인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대외적으로는 중동사태가 그것이었고 국내적으로는 2번의 신용이벤트 발생이 그것이었다. 어찌 보면 이 같은 소용돌이 가운데 이나마 버틴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금리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별 도움이 안 되었다. 그리고 수출 호조에 힘입은 경제성장을 상향은 2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끌어냄으로써 시장금리의 상승을 사후적으로 추인해주었다. 그리고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신용채권시장을 둘러싼 거시적인 여건은 녹록지 않다.

올해 남은 기간 중에는 어떻게 될까? 시기적으로는 추석 명절을 끼고 있는 9월이 지나면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올해 시장도 어느덧 연말 장세로 접어드는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시장흐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론이 너무 길었지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올해는 이미 더 이상 해볼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으니 차라리 내년 이후의 장세를 준비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내년 이후의 시장흐름 및 대응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 포인트는 아무래도 수급 상황이 될 것 같다. 주요 채권발행 공기업업을 위시한 이른바 공적채권의 발행각도는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예고된 증가이기도 하고 이른바 기금성채권(첨단전략, 공급망안정화)의 발행이 한도만큼 풀리지 않고 있는 점은 그나마 공급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회사채와 관련해서는 좀 더 썸뽕이 복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기업들의 시장성조달이 감소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상반기 채권발행 기업들의 전체 차입 증가를 보면 외부자금 조달수요가 적지 않았고 그중 대부분을 은행대출과 같은 일반차입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일반차입금은 만기가 통상 1년이다. 결국 기업들의 조달 관련 단기부동화 심화현상은 CP/전단채와 같은 단기차입금이 아니라 은행대출과 같은 비시장성 차입금 증가에 의해 진행된 측면이 있다. 내년에는 올해 조달한 대출의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시장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시장여건이 받쳐준다면 기업들은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 내년 만기도래하는 일반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회사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즉, 올해 부진했던 발행분이 내년에는 추가로 가세하면서 발행규모가 예년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다.

은행채(비특수은행)와 관련해서는 정책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대출수요가 전술한 바처럼 채권발행으로 돌아설 개연성이 있기에 발행부담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의 증가세가 가계대출 둔화세를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Analyst 김성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종목을 고르지 않는 시장

실전 퀀트 | 2026.09.16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태석 taeseeklee@hanafn.com

모래알 수급, 퀄리티에는 붙었다

퀄리티 대장은 자동차, SW, 반도체 등

- 최근 시장은 퀄리티 팩터만 나 홀로 강세. 9월 MTD 및 최근 3개월 성과 상위은 FCF 상위, 저PBR, 현금흐름 상위, 고배당 등 밸류·현금흐름 계열에 집중돼 있음.
- 반면 고CAPEX, 목표주가 상향, 기관 1개월 순매수 등 알파 액션 팩터는 뚜렷한 하락세임.
- 최근 성과가 높은 스타일은 코스피 거래대금 변화와 역의 상관성이 높은 팩터.
- 시장 거래대금은 6월 평균 5조원에서 현재는 2.2조원으로 50% 이상 감소 추세.
- 원인은 금리 변동성 확대와 안전자산 선호 지속, 개인의 본전 매도 등 시장 활력을 잃은 탓.
- 단기 순환매도 관찰 중, 주가 낙폭과대 팩터가 워킹하면서 특정 종목에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는 구조가 아님.
- 결국 시장이 종목을 고르지 않으니 선별을 전제로 한 팩터가 작동할 수 없고, 고를 것이 없으니 디펜시브 컨셉의 퀄리티 및 고배당을 드는 구조.
- 시장 급변의 트리거는 금리의 급락인데,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임. 다만 이를 헤지하기 위해 금리와 역의 상관성이 높은 반도체의 비중은 충분할 필요.
- 거래대금 증분과 역의 상관성이 높은 팩터가 연말까지 유리하다는 판단(고배당, 목표주가 괴리율 상위, 배당 상향, 저PER, 기관 및 외인 수급 빈집, 순현금 상위, 현금흐름 상위, 주가 낙폭과대, 저PBR, NP 리비전 상향).
- 위 팩터를 조합해보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등이 스코어 최상위, 자동차 업종은 배당수익률(3~6%)이 높고 목표주가 괴리율이 높아질 만큼 많이 빠진 상황, 무엇보다 기관의 빈집 추세 뚜렷, 저평가까지 부각 중으로 해당 장세에서는 가장 퀄리티 높은 대상으로 판단.
- 차상위 스코어를 받은 기업은 카카오, NAVER로 목표주가 괴리가 크고 저평가, 기관 빈집, 주가 낙폭과대, 배당상향, 순현금, FCF 상위 등 부각.
- 그 뒤로는 삼성생명, POSCO홀딩스, 이들 종목은 위 종목군에 비해 기관들의 수급이 조금 유입되어있지만 배당이 높고 저평가 부각, 순현금이 높은 장점으로 높은 스코어를 기록.

2026년 9월 16일 | Global Asset Research

인도

신흥국 전략

인도 이슈 업데이트: 중국과의 관계 개선 신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7년 만에 인도 방문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BRICS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했다. 시 주석의 인도 방문은 2019년 이후 7년 만으로, 최근 양국 관계의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벤트로 평가된다. 인도와 중국은 2020년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을 계기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으나, 2024년 10월 이후 관계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확대는 양국 간 경제·외교적 협력 필요성을 높이며 이러한 흐름을 가속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 정상은 큰 틀에서 국경 안정과 인적·비즈니스 교류 확대, 무역 불균형과 공급망 문제 해소 등을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신규 협력안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회담의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FDI 및 기술협력 확대 기대

이번 회담의 단기 성과보다 향후 양국 관계 개선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FDI와 기술협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 정부는 2020년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중국을 포함한 육상 국경 인접국(LBC, Land Bordering Countries)의 FDI에 대해 정부 사전승인을 의무화했으나, 올해 5월부터 LBC의 지분이 10% 이하인 경우 자동승인 경로를 허용했다. 이후 8월 20일까지 총 29건, 약 5억 달러 규모의 FDI가 신고되어 규제 완화가 실제 투자 제안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정부는 또한 자본재, 전자부품, 태양광 등 전략 제조업에 대해서도 LBC의 투자 제안 심사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두 조치 모두 형식상 육상 국경 인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이지만, 투자 규모와 제조업 경쟁력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중국계 자본과 기술 유치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인도 정부가 중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배경에는 제조업 고도화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인도는 지난 10여 년간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제조업 기반을 빠르게 확대해 왔지만, 핵심 부품과 중간재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최근 제조업 정책의 초점이 단순한 생산 확대에서 핵심 부품과 기술의 현지화, 국내 부가가치 제고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전략적 경계감 유효해 단기간 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가능성에 주목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인도 입장에서 제조업 고도화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보다 원활하게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양국 간 전략적 경계감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단기간 내 대규모 투자나 기술협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관계 정상화와 투자 규제 완화 흐름이 지속될 경우 정책 불확실성과 진입장벽도 점차 낮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와 기술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양국 관계의 추가 개선 여부와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협력 확대로 이어질지 여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2026년 09월 16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현재주가(9.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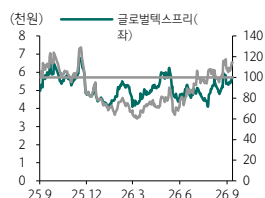
5,71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12.41
52주 최고/최저(원)	6,830/4,000
시가총액(억원)	4,013.2
시가총액비중(%)	0.09
발행주식수(천주)	70,283.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73.4
6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45.0
외국인지분율(%)	20.42
주요주주 지분율(%)	
지티에프홀딩스 외 1인	17.18
Miri CapitalManagement LLC	8.43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억원)	1,921	2,094
영업이익(억원)	350	407
순이익(억원)	323	379
EPS(원)	450	528
BPS(원)	2,450	2,984

Stock Price**Financial Data**

(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420	817	1,084	1,541
영업이익	(36)	98	216	290
세전이익	(151)	(102)	203	286
순이익	(112)	(89)	56	347
EPS	(191)	(140)	83	494
증감율	적지	적지	흑전	495.2
PER	(13.9)	(30.7)	41.0	9.1
PBR	1.9	3.1	2.1	2.2
EV/EBITDA	0.0	0.0	0.0	0.0
ROE	(12.9)	(9.9)	5.1	24.8
BPS	1,418	1,388	1,618	1,993
DPS	0	0	0	0



Analyst 박찬솔 chansolpark@hanafn.com
RA 김진우 jinwookim1336@hanafn.com

글로벌텍스프리 (204620)**관광대국, 인구소멸 대한민국의 운명****국내 M/S 1위 Tax Refund Service**

외국인 관광객이 국세청에 직접 세금환급을 해야 되는 절차와 환급금 회수 기간을 줄여주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서비스업체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약 30%를 매출액으로 인식한다. 국내 시장점유율은 2025년 환급건수 기준 65%, 가맹점수 기준 67%로 압도적 1위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5대 백화점에 모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일반 쇼핑몰/아울렛 커버리지도 가장 높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해외 사업으로 싱가포르/일본(4Q26 매출액 각각 38억원, 8.5억원)에 진출했으며, 기타 지역으로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내 소비 기여도가 높아질 외국인 소비

국내 입국 외국인수는 최고치(All Time High)를 경신 중에 있다. 코로나19 이전 기준 2019년 대비 올해 평균 약 +30.0% 더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 중이다. 가장 최근 발표된 외국인 방문객 데이터는 26년 7월 기준인데, 한달에 209만명이 방문했고, 2019년 7월 대비 +44.6% 증가한 수준으로 3분기 들어 외국인의 유입 속도가 더 빨라지는 모습이다. 한국 정부는 2025년 9월 국무회의에서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목표는 2026년 2월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2029년으로 앞당겨졌으며, 한국관광공사 박성혁 사장(약 24개월 공백을 끝내고 2026년 1월 7일 취임)은 2028년에 조기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26년 2.2천만명, 27년 2.6천만명 목표). 공격적인 수치처럼 보이지만 3천만명 입국은 중장기 계획의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한 인원이 25.08~26.07 기간 중 약 3천만명이다. 해외로 나가는 인원을 겨우 상쇄하는 수준인 것이다. 2028년 이후로도 관광 정책은 국내 인구감소 대응 및 내수 진작을 위한 매우 중요한 경제 돌파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 항공/크루즈 운항 증편, 비자 정책 개선, 지방 관광 상품/서비스 개발 등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

투자의견 및 밸류에이션

2026년 매출액 1,705억원(YoY +10.6%), 영업이익 320억원(YoY +10.3%)을 예상한다. 한국관광공사 2027년 목표치 외국인수 +18% 증가 수준에 기반해 글로벌텍스프리도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20%에 근접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전망한다. 단기적으로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실적 상승에 주목하고 있지만, 글로벌텍스프리 투자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인바운드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추천한다. 1위 사업자로 국내 인바운드 소비의 수혜(세금환급 대행업 국내 M/S 67%)를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업체라는 관점에서 투자자는 시간을 투자해 구조적 성장 흐름과 장기간 동행할 것을 추천한다.

2026년 9월 16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9월 15일

한국전력(051600)

BUY | TP 45,000원 | CP 31,350원

유틸리티

연료비 조정단가는 언제나 동결

2026년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5.0원/kWh로 동결 예상

2026년 10~12월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은 9월 21일에 공개될 예정이며 조정 단가는 기존 5원/kWh 동결을 전망한다. 기준연료비는 688.64원/kg으로 2023년 5월 이후 같은 값이 유지되고 있으나 실적연료비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변동폭이 확대되는 중이다. 2026년 3분기 실적연료비는 469.03원/kg으로 전분기대비 14.2% 높아지면서 6월 산출된 필요조정단가는 -3.4원/kWh으로 6개월만에 저점 대비 9.9원/kWh 상승했다. 2026년 6~8월 무역통계 수치를 감안하면 다음 주 발표될 4분기 실적연료비는 상승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환율 하락폭보다 유연탄, 천연가스 상승폭이 크기 때문이다. 필요조정단가는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인하요인은 사라지고 인상요인이 확인될 것으로 추정되나 변동연료비 결과값과 관계없이 향후 연료비 조정단가는 5.0원/kWh이 유지될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하 기조에서 요금 정상화는 현실화되기 어려움

상반기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으로 실질 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난 가운데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조치도 현실화될 예정이다.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여 지역별 요금 차이를 적용하면 산업용 요금 인하 효과가 2.8조원 규모로 나타날 전망이다. 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인하 정책까지 제시된 상황에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2027년 초까지 에너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경우 연료비 연동제 관련 지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겠지만 요금 정상화보다는 지역별 SMP 도입 또는 SMP 상한제 등의 수단이 먼저 가시화될 개연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아시아 LNG 현물 가격 급등 중. 겨울철 SMP 추가 상승 가능

9월 들어 일별 SMP는 월초 160원/kWh 레벨에서 110원/kWh 수준까지 낮아졌다.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이 전월대비 9.2% 상승하며 LNG 연료비단가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급능력 증가와 비수기 전력수요 감소로 SMP가 하락하는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도 원가 측면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로 작용하는 중이다. 한편 11월 인도분 아시아 LNG 현물 가격은 mmbtu당 28달러 수준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겨울철 조달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수 있다. 카타르 수출 물량 감소로 유럽과 LNG 수급 경쟁이 심화될 경우 2027년 초까지 원가 우려가 부각될 여지가 존재한다.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박시현 boxyhyun@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HD현대중공업 (329180.KS)	9/14	479,000	453,500	-5.32%	- 고선가 선박의 매출 인식 확대와 생산성 개선에 힘입어 조선·엔진 부문 수익성 상승 - 상선 중심의 기존 사업에 더해 합정·방산, 발전엔진·원전 등으로 사업 영역 확대
삼성SDI (006400.KS)	9/14	545,000	547,000	0.37%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순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의 1.48조원 전망
SK이노베이션 (096770.KS)	9/14	144,800	141,700	-2.14%	- 정제마진 회복과 윤활유 사업의 견조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의 실적 기대 - SK온의 유럽 판매 회복과 북미 ESS 배터리 공급 확대가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부각
한화생명 (088350.KS)	9/14	5,990	5,970	-0.33%	- 중장기납 종신보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신계약 수익성 크게 개선 -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에 따른 주주환원 불확실성 완화 기대
오리온 (271560.KS)	9/14	119,300	116,000	-2.77%	- 중국·베트남·러시아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하며 해외 법인 중심의 실적 개선세 뚜렷 - 중국에서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 고무적
DL이앤씨 (375500.KS)	9/14	85,800	89,400	4.20%	- 주택 부문의 높은 마진과 원가율 개선을 바탕으로 양호한 수익성 지속 기대 - 하반기 데이터센터 약 2조원·플랜트 약 2.5조원의 수주 파이프라인 기대
대한해운 (005880.KS)	9/14	2,090	2,030	-2.87%	- 포스코·한국가스공사 등과의 장기운송계약 비중이 높아 안정적인 실적과 현금흐름 기대 - 재무구조 개선과 3,50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기반으로 추가 장기계약 수주 여력 충분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9/14	157,000	166,900	6.31%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RFHIC (218410.KQ)	9/14	48,800	49,350	1.13%	- 방산 매출 확대와 RF머트리얼즈 실적 호조로 이익 성장세 지속 - 미국 Upper C-band 주파수 경매와 국내 5G SA-6G 투자 재개가 중장기 성장 모멘텀
인텔리안테크 (189300.KQ)	9/14	63,400	63,600	0.32%	- 저궤도 위성 안테나-게이트웨이 중심으로 사업 구조 전환 가속화 - 북미 공장 가동과 글로벌 Top-Tier 고객사향 게이트웨이 공급 확대가 추가 성장동력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07%	+4.04%p	+76.19%	+17.5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GS건설 (006360.KS)	9/14	38,500	37,800	-1.82%	- 건축·주택 원가를 정상화와 비용 선반영 효과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 하반기 데이터센터 수주 가능성이 실적 추정치와 밸류에이션을 높일 핵심 모멘텀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9/14	157,000	166,900	6.31%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SK하이닉스 (000660.KS)	9/7	1,647,000	1,690,000	2.61%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 자기주식 취득만 40조원이면 긍정적. 추가 주주 환원도 대기
S-Oil (010950.KS)	8/31	149,200	148,700	-0.34%	- 베네수엘라의 OPEC 탈퇴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대두 - OPEC의 균열, 중동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원가 경쟁력 강화 요인
코스맥스 (192820.KS)	8/24	271,000	273,000	0.74%	- 국내 고성장과 미국 법인 흑자전환, 동남아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진행 - K-뷰티 수출 호조와 글로벌 ODM 1위 경쟁력이 본격 반영되는 가운데 12MF PER 11배 수준
한화에너지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063,000	-3.10%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에 지상생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547,000	19.17%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순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5,680	-5.96%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증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317,000	15.32%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풍산 (103140.KS)	8/3	71,200	76,100	6.88%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75,800	-4.66%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277,000	14.12%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순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증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7.96%	+1.09%p	+39.27%	-19.41%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기(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4,830	-8.5%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37,705	27.6%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TIGER 글로벌 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8,335	-0.5%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 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시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18,505	-20.2%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RISE AI전력인프라 (0101N0)	2026.08.28	20,520	19,795	-3.5%	- 국내 AI 전력 생태계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ETF로 발전 설비뿐 아니라 송배전, 데이터센터 후공정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반을 커버 -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로 전방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전력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HANARO 글로벌 금채굴기업 (473640)	2026.08.28	36,855	33,395	-9.4%	- 글로벌 우량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 금 현물 투자와 달리 편입 기업들의 배당 지급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금 가격 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금 채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부각될 전망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18,100	-15.0%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215	-7.7%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재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24	83.82	11.4%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44	95.02	-3.5%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 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85.14	-3.7%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 내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CI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100.05	7.5%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541.50	66.0%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PAVE (미국 인프라)	2026.08.24	56.39	53.02	-6.0%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72.99	-5.3%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57.60	0.9%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Global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9.13	9.14	9.15	9.16	9.17	9.18	9.19
	- 일본 7월 설비가동률 (0.5%, 이전치 4.1%) - 일본 7월 광공업생산 (3.9%, 이전치 4.1%)	- 한국 8월 수출물가지수 (42.4%, 이전치 49.1%) - 한국 8월 수입물가지수 (15.6%, 이전치 18.7%) - 중국 8월 소매판매 (0.4%, 이전치 0.6%) - 중국 8월 광공업생산 (5.2%, 이전치 4.5%) - 유로존 9월 Zew 서베이 (E 40.0, 이전치 31.4)	- 일본 7월 핵심기계수주 (E -1.2%, 이전치 9.7%) - 미국 8월 소매판매 (E 0.8%, 이전치 -0.6%) -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E --, 이전치 35)	- 미국 9월 기준 금리 (E 3.75%, 이전치 3.75%) - 유로존 8월 CPI (E 3.3%, 이전치 3.3%) - 영국 9월 기준 금리 (E 3.75%, 이전치 3.75%) - 미국 8월 주택착공건수 (E 6.9%, 이전치 -12.4%) - 미국 8월 미결주택매매 (E 0.0%, 이전치 -2.3%)	- 한국 8월 PPI (E --, 이전치 7.7%) - 일본 9월 기준 금리 (E 1.25%, 이전치 1.0%) - 일본 8월 CPI (E 2.0%, 이전치 1.9%) - 미국 8월 광공업생산 (E 0.3%, 이전치 0.2%) - 미국 8월 선행지수 (E 0.2%, 이전치 0.2%)	
9.20	9.21	9.22	9.23	9.24	9.25	9.26
	중국 9월 기준금리 (E 3.0%, 이전치 3.0%)	유로존 9월 소비자기대지수 (E --, 이전치 -15.5)	- 한국 9월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 - 유로존 9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 - 유로존 9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	- 일본 9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 - 일본 9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 - 미국 8월 신규주택매매 (E --, 이전치 --)	- 미국 8월 내구재 주문 (E --, 이전치 --) - 미국 9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E --, 이전치 --)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